

학교-지역간 융합교육의 현실과 대안

김정훈 (불곡중 교장)

지역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다 확대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을 교육이란 큰 틀로 엮어보는 것이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형태를 지역교육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지역 융합 교육은 몇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지역에 대한 교육, 2)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3) 학교와 지역간의 연계, 4) 학교에 대한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첫째, 먼저 지역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초, 중,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지역교육을 다루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3, 4학년 때 담임교사 재량에 의한 마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중등에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리과에서 자연을 언급한 것이라든지, 법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따로 지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위계에 맞는 지역화 교육과정을 두는 것이 지역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송교수님이 지역교육센터를 언급하셨는데 교육센터나 지역 교육과정협의회 정도에서 다루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둘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입니다. 지역의 자원은 크게 보면 인적 자원과 시설입니다. 인적자원은 지역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그 전문분야와 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은 꼭 그 지역의 자원이 아니라 인접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입니다.

시설의 경우 학교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남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몽실학교, 잡월드, 문화예술 시설 등 여건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대적으로 최근 설립된 몽실학교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몽실학교의 경우는 의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이를 교육청 주도로 전환

하다보니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자발성이 떨어진 듯 싶습니다. 사실 몽실학교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취지나 활용을 크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시설과 콘텐츠 운영을 서로 양 기관이 협의해 가며 각기 특화시키고 지역교육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켰으면 합니다.

지역의 교육사업단을 통해 예전보다는 지역의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사용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간 연계입니다. 송주명 교수님께서 기존 혁신학교의 ‘개별학교 중심, 혁신이 용이한 초등학교 중심’의 접근과는 달리, ‘지역전체의 교육전환,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등학교 개혁부터’를 내세우셨습니다.

혁신의 주요대상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교 혁신을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네트워크 운영은 본부학교 또는 교장지구장학협의회장교에서 담당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학교의 네트워크는 학교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본부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고교학점제 전담교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이 협력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하여 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학교를 갓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통고에 적을 두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현재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이 있습니다. 꿈의 대학의 경우 학교마다 참여율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당의 경우 대체로 전학생의 2-3%정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여 혜택을 보는 학생의 비율이 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 교육과정과 실효성있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겠습니다.

넷째,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의 발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제가 늘푸른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절반 정도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지역교육 역시 학교단위 운영이 중요해졌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체험학습도 제대로 못한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감염병 질환 때문에 학교가 힘든 데, 코로나는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재정지원 역시 학교의 이러한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행·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기순환시설, 온라인 진로체험, 개별실험키트를 이용한 과학수업, 스마트교실을 활용한 IT교육 등이 근간에 모두 개별 학교 단위의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이제까지 지역과 교육청에서 학교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지역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남의 판교테크노벨리 매출이 작년에 109조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중 92%가 첨단업종입니다. 미래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와 동일한 공간구조에 시설도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성남형 사업을 통해서 지역교육청과 시청의 노력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성남시의 경제규모를 생각한다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이 지역과 융합해가면서 교육자치가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